

보도자료

February 07, 2019

바스프, 솔레니스(Solenis)와 제지 및 수처리 화학 사업부 통합 완료

2019년 2월 7일 -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가 자사 제지 및 수처리 화학 사업부 (paper and water chemicals business)와 미국 수처리약품 제조기업 솔레니스(Solenis)와의 통합을 완료하고 2월 1일부터 솔레니스 명의로 더욱 향상된 판매, 서비스 및 생산능력을 제공한다.

통합된 사업부는 2017년 기준 매출액 약 24억 유로 (한화 약 3조 600억 원)와 5,20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며, 확장된 제품 포트폴리오와 제지 및 수처리 관련 고객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. 바스프의 지분율은 49%이며 나머지 51%는 클레이튼, 두빌리에 앤 라이스(Clayton, Dubilier & Rice) 펀드와 솔레니스가 보유하게 된다.

이번 사업부 통합은 영국 브래드퍼드(Bradford)와 그림즈비(Grimsby), 미국 서퍽(Suffolk)과 버지니아(Virginia), 멕시코 알타미라(Altamira), 인도 안클레슈와르(Ankleshwar), 호주 퀴나나(Kwinana)에 위치한 바스프 제지 및 수처리 화학 사업부의 사업장 및 생산공장에 해당된다.

한편 바스프는 실적 결산 시 지분법을 적용해 바스프가 보유한 솔레니스 지분의

Media Relations

한국바스프

홍보팀 김나리 과장

Phone: (82) 2 3707 7507

Fax: (82) 2 3707 7889

lauren.kwon@basf.com

Synergy Hill+Knowlton Strategies

(홍보대행사)

정나리 팀장

Phone: (82) 2 2287 0953

Mobile: (82) 10 8377 8130

nari.chung@hkstrategies.com

한국바스프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,

대한상공회의소빌딩 16층 100-743

Phone: (82) 2 3707 3100

Fax: (82) 2 3707 3122

<http://www.basf.co.kr>

순이익을 사업부의 특별항목 이전 영업이익에 포함하고 바스프 그룹 차원으로는 기타 부문 영업이익에 포함할 예정이다.

솔레니스 CEO 존 파니첼라(John Panichella)는 “솔레니스와 바스프의 오랜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지 및 수처리 산업에 선도적인 고객중심적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.” 며, “양사의 강점을 반영한 독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와 최첨단 혁신 및 노하우를 제공 할 것”이 라고 말했다.

바스프 퍼포먼스 케미컬 사업부의 아누프 코타리(Anup Kothari) 사장은 “솔레니스와의 통합은 바스프 제지 및 수처리 화학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고 미래 성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다” 라며, “솔레니스와 함께 바스프는 제지 및 수처리 산업을 위한 폭넓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”라고 덧붙였다.

한편, 독일 루드비히스하펜과 중국 난징 페어분트(Verbund)에 위치한 바스프 제지 및 수처리 화학 생산공장은 통합되지 않으며, 솔레니스와 중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제품 및 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. 이 밖에 바스프의 제지 코팅 화학 포트폴리오는 이번 사업부 통합에 포함되지 않는다.

###

바스프 그룹 소개

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이다. 바스프는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.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세계 약 11 만 5 천명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및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. 바스프 그룹은 화학, 원료, 산업 솔루션, 표면 기술, 영양&케어, 농업 솔루션의 6 개 분야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. 바스프는 2017 년 600 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바스프 주식은 프랑크푸르트(BAS), 런던(BFA), 취리히(BAS)에서 거래되고 있다. 바스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.basf.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.